



NH공사, '더 아름다운 라이딩' 기부금 전달

I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IX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한 자선기부추진대회 '더 타고, 더 기부하는 The Beautiful Riding 기부금' (더 타고, 더 기부하는 더 아름다운 라이딩·이하 더 아름다운 라이딩)을 통해 또 한 번 아름다운 선행에 나섰다. IX공사는 더 아름다운 라이딩 참가자들의 참가비(4,500만 원)에 공사 기부금을 더한 총 1억 원을 전국의 미혼모 가정과 학대피해아동을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에 13일 전달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기 위한 더 아름다운 라이딩은 목표거리 5km를 달리는 대국민 기부챌린지다. 지난 10월 1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이번 라이딩에는 8세 어린이부터 76세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국민 1,500명이 전국 각지에서 동참했다. /김영태 기자



에코에너지원,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남원시는 13일 에코에너지원(주)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에코에너지원(주) 기부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9월 5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어 사회적 공헌 기업으로 우뚝 섰다. 사업장은 남원시 어학동에 위치해 있으며 산림 사업 및 입산업체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 등(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이용하여 친환경 목재펠릿 및 목재칩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성민 대표, 주종훈 전무 의 임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성민 대표는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에코에너지원(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에코에너지원(주)이 보내주시는 온정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산소방서, 사우나 등에 비상용 목욕기운 비치 독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목욕탕 찜질방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착용해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 목욕기운' 비치용 13일 적극 당부했다. '비상용 목욕기운'은 목욕탕 찜질방 수면방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옷을 챙겨 입다가 대피시간이 지연되어 연기로 인한 질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상용 물품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이용객들이 옷을 챙기다가 대피가 늦어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비상용 목욕기운을 비치 시 대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40초에서 약 18초로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소방서, 연말연시·성탄절 소방안전대책 추진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연말연시 및 성탄절을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연말연시, 성탄절 등 화재 취약시기에 앞서 선제적 예방조치를 통해 다중 밀집 시설 등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교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합동 화재안전조사, 성탄절 대비 지역이동센터 소방안전교육, 화재 특별경계근무 실시 및 화재 예방 기동 순찰 강화, 화재 취약대상 감시체계 구축, 연말연시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추진 등이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따뜻하고 안전한 성탄절·연말연시를 위해 주변 위험요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안전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박진배 전주대 총장,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9일 전주시 서서학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는 박진배 총장을 비롯해 이덕수 총무처장 등 직원 50여 명이 참석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전주대 직원 봉사팀은 혹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2천 장을 직접 배달했다. 박진배 총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연탄 가격 등 생필품의 물가상승으로 힘든 시기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소망한다"며 "전주대학교는 늘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5번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개 될 것. 전주대는 이번 연탄 나눔 봉사활동뿐 아니라 지난 12월 2일에도 완산구 일대에 6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해 총 10가구에 3,000장의 연탄 나눔 봉사, 그리고 직접 뜬 목도리 1,000여 개, 시내버스 기사님을 위한 간식 나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민간 복지안전망 빛내준 나눔 실천가 응원

익산시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으로 지역 복지안전망을 빛내준 나눔 실천가를 응원한다. 시는 13일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대공연장에서 '반짝 반짝 빛나는 당신' 익산의 꿈과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2022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희망복지지원사업, 읍면동 맞춤형 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이웃 돌봄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준 나눔 실천가들 88명에게 익산 시장상이 수여됐다. 이날 단체 표창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실천한 기관(기업) 7개소와 시민 77명, 유공 공무원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은 희망복지지원사업, 읍면동 맞춤형 복지활성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기 민간위원장 등 3개 유공 분야로 진행됐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 단체, 기업 등 후원과 참여로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운영했다. 그 결과 다이로움 나눔공간에 5억 4천 5백만원, 전북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5억 2천 2백만원 등 총 10억 6천 7백만원이 기부되어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에게 생계안정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는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정현을 시장은 "올 한해도 따뜻한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백선관 전북대병원 환우 가족, 감사의 발전후원금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한 환자의 가족 백선관을 병원 발전후원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은 본관 3층 은고을홀에서 유희철 병원장 양재도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전후원금을 기부한 백선관은 "어머니 서금이 님의 진료와 수술을 담당한 간담웨이시현관외과 양재도 교수와 병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 돈이 병원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길 바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희철 병원장은 "병원을 이용해주고 또 큰 관심과 정성으로 발전후원회에 기부해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며



"병원에 보내주시는 고객들의 소중한 정성은 병원을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군, 성탄 트리 점등식 가져

하늘에는 영랑, 땅에는 평화 무주군이 13일 군청 앞에서 크리스마스 대형 트리를 환하게 밝히고 군민들과 성탄을 함께 축하한다. 군은 이날 오후 군청 분수대 광장에서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을 비롯해 기복교계 관계자, 성도, 지역주민,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행사를 갖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다. 군청 광장에 설치된 성탄 트리는 높이 9m, 둘레 24m로 내년 1월 29일까지 48일 동안 군청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면서 나눔과 실천 사랑을 전파하게 된다. 광장 주변에는 소형나무 은하수 조형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점등식은 찬송과 기보무주군 기복교 연합회 회장, 이상덕 목사,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의 축사 트리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연말연시 맞아 장학금·성금담지 귀감

연말연시를 맞아 무주군에 장학금과 성금이 담지되어 귀감이 되고 있다. 13일 사단법인 행복드림복지회는 무주군에 취약계층에 사용돼 달려면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사단법인 행복드림복지회 조연용 대표는 "무주지역 주민들이 추운겨울을 맞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으나마 정성을 보내게 됐다"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이 미래 세대들에게 사용해 달라면서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공무직 조합원들의 시기충전과 화합을 다짐하는 행사를 마친 후 장학금을 전달한 것. 오순덕 지부장은 "무주군공무직 노동조합이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예수병원, 차세대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도입

예수병원은 병원정보시스템 솔루션 선두기업인 삼성SDS의 통합의료정보 Nexmed EHR을 기반으로 진료부터 병원 행정, 경영 정보까지 병원 전반의 의료서비스 영역을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으로 고도화시킨 차세대 통합의료정보(EMR)시스템 NOA-H를 성공적으로 오픈했다. NOA-H는 New Open Advanced Hospital의 줄임말로 노아의 이름처럼 평안을 이루어 새롭게 발전되는 병원 전산시스템이라는 뜻이다. 이번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을 기반으로 전주 예수병원은 전라북도 내 주요 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며,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2월 병원 시스템 구축 선두기업인 삼성SDS와의 시스템 구축 계약 이후 10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예수병원은 '첨단 ICT 기반 미래지향적 스마트병원'이라는 비전에 한 발자국 앞서 나가며 환자 안전 및 의료의 질 관리 등 다양한 정보 활용 중심의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환자 의무 기록과 임상자료 디지털화가 시스템 내에서 운영 가능 및 환자 개별 정보 관리가 통합적으로 가능해졌다. 또 인공지능 의료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진료 연구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환자 의료정보 보안 체계도 더욱 강화됐다. 임상 데이터 효율적 관리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확보를 통해 연구중심 병원으로의 기틀도 마련해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한 깔끔한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신중식 병원장은 "이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예수병원은 전라북도 내 주요 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여, 환우와 직원을 위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선진 의료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서향경·김석환 정읍시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 서향경 의원과 김석환 의원이 지난 12일 전라북도 시군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서향경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보건과 교육의 전문성을 살려 시민의 건강이 지역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정책 반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환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의회 풍토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고, 주민들의 애로, 불편 사항을 듣기 위해 삶의 현장 찾아가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따뜻한 정을 행복만 정읍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교대, 임실 관초초서 음악회 개최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준)는 지난 12일 임실 관초초등학교를 찾아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 대학 음악교육과 학생 11명이 참여해 관현악 연주와 노래로 어린 관객들에게 추운 겨울 따뜻한 사랑을 선사했다. 연주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어울리는 올덴오펀, 가브리엘의 오보에, 사랑의 인사, 시간을 거슬러 곡으로 채우고 나 하나 꽃 피어 노래와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루돌프 사슴코, 징글벨 캐롤송으로 연주회를 마무리했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문화예술로부터 접근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연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제28회 효행·선행시민·우수회원 표창 시상식

전주시 협의회(회장인두 회장)는 지난 12일 오후 17시 30분 중화사동 오즈하우스에서 바르게살기 임원 및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효행·선행시민 시상식 및 결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영자씨 등 6명이 효행·선행 시민상을, 우수회원 상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에 장상태씨, 전라북도지사상에 윤근성씨 등 7명, 전주시장상에 김금비씨 등 4명 등 19명이 표창을 받았다. 회장인두 회장은 "앞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 협의회에서는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 계속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기자